

# 문닫는 병원 > 문여는 병원

중소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광주지역에서 문을 닫는 병·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대형병원의 환자수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였다.

광주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원한 병·의원 수는 5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곳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동안 폐업한 병·의원 수는 63곳으로 지난해 81곳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었지만, 폐업 병·의원 수에서 개원 병·의원 수를 뺀 실제 차이는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극에 달한 지난 10월 한 달간 폐업한 병·의원은 11곳에 달해 올들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도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 올해 63곳 폐업...개원은 50곳 대형병원은 환자 수 늘고 매출 증가

구별로 보면 동구의 경우 올들어 개업한 병·의원은 4곳인데 비해 폐업한 병·의원은 19곳에 달해 도심공동화와 도심 유동인구 급감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구도 개업(15곳)에 비해 폐업(22곳)한 병·의원이 많았으며, 남구는 개업과 폐업 모두 16곳으로 같았다. 반면 신항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구(개업 7곳·폐업 1곳)와 광산구(개업 8곳·폐업 5곳)는 문을 연 병·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신도심 이전 현상도 두드러졌다.

올해 초 대한의사회가 내놓은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은 여실히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당 평균 개인 부채금액이 3억2천여만원에 이르렀고, 현재 의원 운영실태에 대해 개원의 8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의 경영난이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개원의도 97.3%에 달했다. 반면 대형병원의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중소병원이 가장 힘들었던 지난 10월에도 오히려 매출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지난 10월 외래환자 수는 7만2천9백여명으로 올해 1~9월까지 월 평균 외래환자 수 7만2천600여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조선대학교병원도 올해 평균 외래환자 수는 4만6천500명이었지만 지난 10월에는 4만7천252명으로 다소 늘었다. 광주시내 A 중소병원 원장은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에다 의료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러 중소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형병원들이 지속적인 병상을 늘려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가 고가 장비 수입에 따른 환을 여과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 서울대 2010 정시 수능 비중 높인다

### 전남대는 수시 모집 늘리기로

서울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비중을 높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입시 정책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대학도 비슷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남대는 수능 비중이 높은 정시모집 인원을 축소하고 수시모집 인원을 늘려 우수 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대는 올해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최근 정시모집 일반전형 2단계에서 20% 반영되던 면접 및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수능 성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단계 전형에만 반영됐던 수능 점수가 2단계 전형까지 확대된 것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능 성적을 자격고사 형식으로 유지해왔던 서울대의 입시정책이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아직까지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며 공식 발표를 꺼리

고 있으나 대체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나 면접·구술고사, 학생생활기록부(내신)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남대는 2010학년도 입시에 현재 5대 5인 수시와 정시모집 인원을 6대 4로 조정하는 등 수시 모집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대 노안영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미 정시모집 인원의 상당수를 수능 100% 전형으로 뽑는 등 수능의 영향력이 큰 상태"라며 "2010년에는 일부 모집단위에서 현재 10% 반영하고 있는 면접을 없애고 학생부와 수능을 5대 5로 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대 조태훈 입학관리본부장은 "정시모집 인원의 절반을 가·다군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뽑고 있다"며 "수능의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의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무곡사에서 열린 광주·전남불교협의회 창립식에서 광주·전남지역 5대 본사와 30여개 불교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정익기자 jwi@kwangju.co.kr

## “종교 편향 좌시하지 않겠다” 광주·전남 불교계 상설협의체 구성

## 한나라 도당 간부와 짜고 취업사기 모집책·가짜 면접관 2명 실행 선고

광주·전남지역의 불교계가 현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무곡사에서 창립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종교차별 종식과 기본권 수호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협의회에는 대흥사와 백양사,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등 광주·전남 5대 본사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 전남대 교수불자회 등 30여개 불교단체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창립식 뒤 가진 결의대회에서 종교차별금지법 입법과 공직자

들의 종교편향 중단을 촉구했으며, ▲종교차별 종식 및 정법수호 ▲국민주권·불자인권 옹호 ▲생태계·사찰환경 보호 ▲불교문화재 보호 ▲불교발전 사업 ▲시민사회 및 타 종교와의 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최근 불교는 정권과 보수언론의 종교편향 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불교인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참회하고, 앞으로 종교차별 행위와 민주주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원기자 ahj@

## 수능 본 고3생 아파트 투신 자살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1시50분께 영광군 홍농읍 H 아파트 주차장에서 Y 고등학교 3학년에게 재학생인 박모(18)군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에 사는 이모(16)군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박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

만 숨졌으며, 아파트 옥상에서는 박군의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박군이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군은 숨지기 이틀 전 수능시험을 치렀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광주 입원 환자 잇단 사망 수사

최고 광주지역 중소병원 입원환자가 잇따라 숨져 경찰이 병원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6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S병원 입원실에서 R(여·71)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숨졌다. R씨는 지난 7일부터 팔과 허리골절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

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병원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12일 밤에도 광주시 동구 K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S(22)씨가 폐부종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니원침 (7654)**

이런 것들이야... 아니다

지식과 정성은 나눠야...

우리가 잘 살려면...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밤 함께 가져 가려고 주먹질

○광주의 한 재래시장 노점에서 밤을 가져 가려던 4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노점상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K(44·광주시 서구)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밤 노점을 하는 P(여·69)씨의 밤 바구니에서 밤 한개를 가져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P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는 것.

○P씨는 “K씨가 몇 달 전 우리 노점에서 밤 한 바구니를 사간 이후 틈만 나면 노점에 들러 허락없이 최상품 밤을 한 두 개씩 집어간다. 주먹까지 휘둘렀다”며 밤을 삼키지 못하는 모습.

○한편 K씨는 경찰에서 “밤 한개 집어 갔을 뿐인데 P씨가 따지고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났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2009학년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모집

1. 교육대학원

2. 모집학과

학과	모집인원	모집기간
교육심리학과	10명	11.20 ~ 11.22
교육철학과	10명	11.20 ~ 11.22
교육사회학과	10명	11.20 ~ 11.22
교육정책학과	10명	11.20 ~ 11.22

3. 지원자격

4. 모집방법

5. 입학시험

6. 등록금

7. 연락처

순천대학교 | SUNCHON UNIVERSITY

### 만드셨다 혁신적인 신탁예금!!

4~9 % 복 리턴입니다

한시 모집

12개월 7.2% = 8.4%

7.1% = 8.3%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
연이자율	7.0%	7.1%	7.2%
기간	1년	2년	3년
월이자율	6.0%	6.1%	6.2%

광주분회 신탁

본회사무소: 288-1100 (본회사무관 박 사계) | 본회사무소: 288-1100 (본회사무관 박 사계)